

제조업 줄고, 소상공인 경기 악화 내수부진 한파에 서울 경기 '꽂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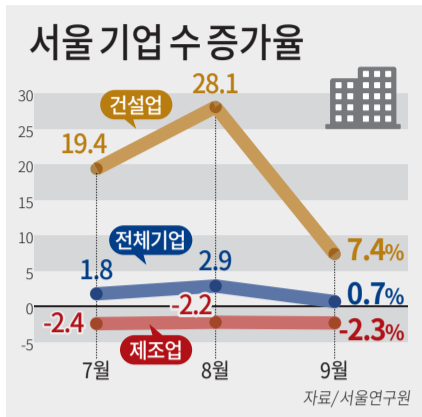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발표
제조업 등 감소, 기업 수 증가 둔화
가계·기업 대출 증가... 연체율↑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서울 지역의 경제 활동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경기 진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서울의 기업 수는 제조업체와 창업기업 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소상공인 경기 전망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 서울의 기업 수 증가율은 0.7%로 전월(2.9%)보다 하락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은 7.4%, 제조업은 -2.3%를 기록했다.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5~29인 규모 기업의 경우 각각 4.0%, 1.5% 줄었다.

지난 8월 서울의 창업기업 수 증가율(-11.7%)은 개인 창업기업 중심으로 전월(1.1%)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개인 창업기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8%, 법인 창업기업 수는 3.5%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지난달 73에서 이달 71로 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업황 BSI 전망치도 74에서 72로 2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에 대한 사업자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BSI가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가 긍정적이라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악화됐다는 뜻이다.

올 11월 서울 소상공인 BSI 전망치는 79.1로 지난달 85.2와 비교해 6.1포인트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이달 BSI 전망은 전달(87.1)보다 4.9포인트 내린 82.2였다.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비경기도 위축됐다. 지난 9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3.4%로 전월(0.0%) 대비 감소했다.

올 9월 서울의 소비경기지수(-3.1%)는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으로 전월(-1.2%)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지난 8월 0.4%에서 9월 -0.8%로, 숙박·음식점업은 -3.9%에서 -7.0%로 각각 1.2%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가계와 기업의 대출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됐다. 올해 8월 서울의 예금은행 가계 대출은 전월 366조9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 늘어난 371조원을 기록했다. 서울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357조원)과 비교해 3조원 불어난 360조원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새벽 자율주행버스 내일부터 서울 달린다

내일 새벽 3시 30분부터 운행
'A160번' 도봉구~영등포구 연결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길 고단함을 덜어 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서울시 내를 달린다.

서울시는 주간에 도봉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 오는 26일 운행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A160번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km 구간을 오가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로, 평일에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간에 운영되는 '160번' 노선은 오전 3시 56분, 다른 버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 2대가 동시 운행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종로·여의도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혼잡한 경우가 많아 증차

하거나 첫 차 출발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해 도봉산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한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나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탑승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3개 권역에 'RE100 특구' 추진

오는 28일, RE100 포럼 개최

경기도가 오늘 28일 '2024 경기 RE100 포럼'을 개최하여 발전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도를 서해안, 북부,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참여 시군 공모에 나선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36개 기업(29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이 참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특구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과정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도가 주민 수용성·환경성 등 적합 부지를 발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크게 3개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을 활용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연대 논술 추합 120%... "정시 이월시 파장"

(지난해, 자연계)

연세대 논술 추가합격 비율 매우 높아
최상위권 이공계열 합격선 시각변동

지난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전형 추가합격률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문제유출' 논란을 겪는 연세대가 해당 전형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 자연계열 최상위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합격선 변화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전형에서 모집정원(250명) 대비 120.5%에 해당하는 312명이 추가합격했다. 해당 전형 최조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하고도 20%가량이 등록하지 않아, 차

순위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입학권이 부여됐다는 의미다.

연세대 자연계 응시자는 서울대 이공계나 타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 지원했을 가능성이 커 이들 대학에 빠져 나간 결과로 보인다.

이같은 규모의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경우, 최상위권 이공계열 합격선에 시각변동이 있을 것인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변수 외 연세대 자연계

논술 변수도 의약학계열 및 타대학 추가합격에 상당한 영향력 변수로 볼 수 있다"라며 "연세대 논술전형 자연계 추합비율이 120.5% 논술 전형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고,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월 이월될 경우, 정시 합격선, 정시 추가합격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준하는 상당한 입시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학년도 의약학계열 추가합격자는 전국 99개 대학에서 3333명 발생했다. 선발인원(3289명)의 10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현진 기자 lhj@

자사고였던 이화·금란고, '이음학교'로

이화·금란중과 통합운영학교로 운영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운영되던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속 이화·금란고)가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과 동시에 이대부속이화·금란중학교와 통합운영학교

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대부속 이화·금란고와 이화·금란중을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인력·시설·기자재 등 한정된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학사를 통합·관리한다. 현재 서울에서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일신여중·잠실여고 등 4곳이 운영 중이다.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 이음학교는 내부 사전 준비를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해질 17:16

11월 25일 (월) / 음력: 10월 25일

수도권 날씨: 4 ~ 15°C

운동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빨래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세차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외출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4, 동두천 0/14, 가평 -1/14, 파주 -1/14, 서울 4/15, 양평 1/14, 인천 5/15, 수원 3/14, 용인 3/14, 평택 2/16, 백령도 8/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농무장관에 롤린스 지명... 장관 인선 마무리 /사진 뉴시스
▲유엔기후총회 COP29, 선진국 분담금 '최소' 연 3000억달러 합의 폐막

▲연준 "美 정부채무 부담, 금융안정에 최대 위협" 지적
▲"러시아, 나토국 회원국에 사이버 공격 가할 준비 마쳐" 英 장관



▲日, 한국 불참에도 사도광산 추모식 강행 방침
▲아랍 에미리트 파견 유대교 랍비 실종... 이스라엘은 테러 의심 /사진 뉴시스